

<http://dx.doi.org/10.17703/JCCT.2023.9.1.267>

JCCT 2023-1-33

조선족 아르바이트 유학생의 차별경험 - 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 접근 -

Experience of Korean-Chinese Part-time Job Students in Korea - Approach to the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of Colaizzi-

정림*, 최원규**

Lin Zheng*, WonGyu Choi**

요약 본 연구는 조선족 아르바이트 유학생의 차별경험과 의미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조선족 아르바이트 유학생 9명을 대상으로 2022년 5월부터 6월까지 심층면담 후 자료를 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비 마련과 효율적인 적응을 위한 새로운 도전, 둘째, 가지덤불 가득한 이 길, 셋째, 차별을 넘는 적응에 노력, 넷째, 아르바이트를 통한 성장과 관계맺음에 기회로 드러났다. 이 경험은 조선족 아르바이트 유학생에게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뿐만 아니라 자신이 더 성장하는 과정이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유학생과 조선족인 이중신분으로 다중차별을 받고 있다. 그들의 조선족 신분은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더 지향적인 차별경험을 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그들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다. 조선족 유학생은 차별경험을 받아드리고 유학생회에 적응하며 성장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로 우리는 향후 다문화사회의 발전으로 조선족 아르바이트 유학생의 근로인권보장의 교육과 도움이 필요하다.

주요어 : 유학생, 조선족, 아르바이트, 차별, 경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experience and meaning of discrimination among Korean-Chinese part-time job international students. To this end, after in-depth interviews with nine Korean-Chinese part-time job international students from May to June 2022,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Colaizzi's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New challenges for living expenses and efficient adaptation, this road full of thorns, efforts to adapt beyond discrimination, growth and relationships through part-time jobs turned out to be opportunities. This experience became a process for Korean-Chinese part-time international students to grow further as well as solve economic problems. However, they are subject to multiple discrimination due to their dual status as international students and ethnic Korean-Chinese. Their Korean identity gives a more directed differential experience in the process of working part-time. But in the process, they are still overcoming difficulties. Korean-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are growing up by accepting discrimination experiences and adapting to their international life. As a result of the above research, we need education and help to guarantee working human rights for Korean-Chinese part-time students with the development of a multicultural society in the future.

Key words : International Students, Korean-Chinese, Part-time Job, Discrimination, Experience

*준회원, 전북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제1저자) Received: December 15, 2022 / Revised: January 5, 2023

**준회원,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교신저자)

Accepted: January 9, 2023

접수일: 2022년 12월 15일, 수정완료일: 2023년 1월 5일

**Corresponding Author: jb2964@jbnu.ac.kr

게재확정일: 2023년 1월 9일

Dept. of Social Welfare, Joenbuk Univ, Korea

1. 서론

글로벌 시대로 발을 내딛은 오늘날, 각 나라의 인구는 더 이상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다. 한국은 이런 변화를 빨리 적응하고 발전하여 현재 점차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의 모집으로 많은 타문화 학생들이 학교에 융합하게 되며 유학생들을 하고 있다. 최근 제한 외국인인 현황 중에서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외국인 유학생의 급격한 증가이다. 예전에는 한국 학생의 해외 유학이 일방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신장됨에 따라 아시아 국가, 특히 중국 학생들의 한국유학이 급증하고 있다. 2022년 1월 교육부 통계 기준으로 보면 제한 유학생의 인구는 160,849명이고 그중 중국 출신 유학생은 약 47,337여명이며 29.4%의 비율로 베트남 출신 유학생의 39.5%로 1,2위를 차지하고 있다. 많은 중국 유학생중 조선족 유학생은 특수한 존재로 볼 수 있다. 조선족은 한국(조선)계 혈통을 가진 중국인으로, 중국 정부가 공인한 한족 외 55개의 소수민족 가운데 하나이다. 한국인과 공통조상을 가진 한민족계 후손이라서 한국어가 가능한 사람이 많고 1992년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이후에 태어난 조선족 청년층은 대부분 이중 언어 교육(중국어와 한국어)을 받아 왔기에 한국문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현재 한국에 유학하고 있는 조선족 유학생은 대부분 이 그룹에 속한다. 다른 중국 유학생과 달리 한국어 공부를 많이 하거나 한국문화에 낮서 적응해야 하는 상황은 많지 않다. 이러한 민족적 요소의 우세로 인해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에 유학 온 것은 조선족에게 인기 있는 선택이 되었다.

단 유학생 신분으로 한국에서 학습하는 과정에 경제적인 부분도 많이 고려해야 해서 조선족 유학생도 아르바이트 경험을 갖고 있다. 언어적인 우세로 TOPIK자격증을 따며 아르바이트 시간제한을 갖지 않고 개인의 의향에 맞추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2.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한국은 다문화 시대로 진입해 왔으며 이에 대한 사회문제의 발생으로 연구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 단 유학생 집단의 중요한 구성부분의 하나인 중국 유학생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중국 유학생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진행한 연구로 보았을

때 그들의 문화적응, 사회적 스트레스와 취업선택 등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아르바이트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한국 법무부는 2002년부터 외국인 유학생의 아르바이트를 허용했다. 외국인 유학생의 아르바이트 허용은 유학생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경제적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사회경험을 쌓을 수 있어 주재국의 문화에 대해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아르바이트는 중국 유학생의 유치는 단순한 경제적 효과를 넘어서, 한·중 문화 간의 상호교류와 한국문화를 전달하는 기회를 갖는다는 점에서 문화적·교육적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아르바이트에 많은 시간과 정력을 투입하여 자신의 학업에 영향을 주는 학생도 있지만 이러한 경험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가족의 부담을 해결할 수 있는 점에 인하여 아르바이트는 유학생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선택이다.

단 유학생으로 아르바이트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위에 언급한 아르바이트에 많은 시간과 정력을 투입하여 학업에 소홀하여 정상 졸업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단 이런 상황은 자신의 주관적 원인으로 누구를 원망할 수는 없지만 사회적인 요소에서 많은 피해를 받는 것은 사회복지적인 부분을 고민하게 된다. 아르바이트 하는 과정에서 동료 혹은 사장님에 인권침해를 받은 사례가 있다. 특히 조선족 유학생은 민족적 신분으로 부가적인 차별을 받는다. 민족적 요소의 우위로 그들을 더 나은 근로 환경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아르바이트 문화에 더 잘 녹아들게 한다고 예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니다. 같은 민족으로 환영하고 그의 민족정체성을 존중해주는 인식에 반면 조선족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조선족에 대한 이미지는 긍정적인 것만은 아닌, 외려 부정적 이미지가 지배적으로 한국사회에서 이들은 국민국가의 시각이 그대로 반영된 경계인, 이방인, 주병인, 변방인으로 봉인되어 있다[1]. 이러한 인식으로 조선족 유학생이 아르바이트 하는 과정은 일반 중국인보다 더 지향적인 차별을 받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본 문은 이러한 배경에서 조선족 유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그들의 아르바이트 경험을 심층면접으로 인터뷰하여 알아가고 아르바이트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차별경험을 알고자 한다. 세계화 추세에 다른 다문화 사회구도는 막을 수 없고,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편견은

사회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의미로 연구를 진행하여 조언을 제공하는 목적이 있다.

II. 선행연구 고찰

1. 유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

노동, 구체적으로는 “본업 이외의 부업”이라는 뜻이 아르바이트(Arbeit)는 학생이나 직접인 등이 돈을 벌기 위해 부수적인 일을 하면서 일정한 수입을 올리는 것을 의미한다[2]. 한국사회에서 점차 다국 학생의 진입으로 다문화 유학생 수가 많이 증진하고 있는 실제로 유학생 중 아르바이트를 하는 부분도 많이 증가하고 있다. 그들에게 아르바이트를 하는 과정은 유학생들에 일부분으로 되고 있다. 아르바이트는 유학생에게 좋은 한국사회 문화적응의 과정이자 더욱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선택이다.

한국사회 아르바이트생이 급진하고 있어 학계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와 유학생 아르바이트 연구로 나누고 있다. 유학생 아르바이트로 그들의 학교생활의 적응과 향후 취업선택의 영향으로 많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간략히 보면 아르바이트생의 직무적응, 권리보호, 학교적응 등 방향으로 많이 연구하고 있다[3, 4]. 유학생들로 크게 구분하면 학교내의 학습생활과 학교외의 사회적 활동이다. 아르바이트는 완전한 사회적 활동이지만 유학생의 학교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많은 연구로 유학생의 학교적응과 학업상황을 아르바이트 경험과 연결하여 그의 상호관계를 보고 있지만 그들의 아르바이트 경험에서 구체적으로 겪고 있는 상황과 문제들을 잘 살펴지지 않았다. 유학생으로 많은 문제를 극복하고 있지만 학교내의 환경에서 주변 선생님과 학업친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사회에서 지향적인 도움을 받긴 힘들다. 학교에서도 유학생으로 활동하지만 한국인 학생의 도움을 찾거나 좋은 네트워크를 가진 유학생은 아주 적은 비중을 차지한다.

중국유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으로 차별과 무시, 성희롱과 중국인은 더럽다는 편견, 중국(산)에 대한 불식과 무시, 한국의 직장문화와 인간관계에 대해 배움, 한국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 진로 탐색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5].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그들에 대한 관심은 필요하다. 사회적 환경으로 그들에 주는 피해의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한국에 제도적·사회적 배제로 인해 피해자 지위에 처해있지만 그들의 주동적으로 한국사회 편입의지는 매우강한 것으로 보고 있다[6]. 자신의 향후 취업선택이나 아니면 현재 학업생활에나 이런 의지가 생기므로 많은 보답을 받을 수 있어서 효율적인 선택으로 판단되고 있다. 단 아르바이트경험으로 지위 비행 중 하나인 음주와 공격성이 매개경로를 거치게 되며 학교부적응에 영향을 미친다[7].

오늘날 유학생들 중 점차 중요해진 아르바이트 활동으로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다. 특히 한국어 능력이 높은 외국인 아르바이트생들이 한국어 능력이 낮은 이들과 문화적응과 직무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다[8]. 그러면 한국어 수준이 평균적으로 높은 조선족 유학생들은 더 좋은 아르바이트 생활을 하고 있을까? 먼저 한국사회에서 조선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자.

2. 재한 조선족의 곤경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중국 소수민족의 일원인 조선족의 한국으로 향한 인구이동은 계속돼 왔다. 이 과정에서 조선족은 초기의 경제적인 기초육구를 만족시키는 목표로 한국에 왔었지만 같은 민족에 다른 대우로 자신의 민족정체성을 다시 반성하고 특수한 집단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 이런 현상에 원인은 다양하지만 당분간 발효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많은 영화와 매개에서도 조선족에 대한 이미지는 오명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9]. <황해>, <청년경찰>, <범죄도시> 등 많은 미디어 속에서 조선족에 대한 인식은 기존의 부정적 이미지를 재확인하고 더욱 강화해주고 있다 [10, 11]. 이런 인식속에 생활하는 조선족은 다중배척을 받고 있다. 주로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배척으로 구분된다[12]. 조선족에 대한 인식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한국 학자들의 분석은 많았지만 현 단계에서 미친 효과는 적다.

지금 한국 사회에 살고 있는 조선족은 막막하다. 그들은 처음에 한반도에서 뿌리를 찾기를 바라고 한국 사회에 제대로 스며들지 못하는 실의(失意)를 겪었다. 문화가 적응하는 과정에서 파동의 발달을 거쳐 막막한 자기인식의 갈림길에 이르렀다[13]. 자신들의 처지를 바꾸려는 이들의 분투와 몸부림은 물질적 삶에 어느 정도 개선·향상을 가져왔지만 한국에서의 생활은 현지인들과

깊은 괴리가 있었다. 공간뿐 아니라 심리적인 장벽도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다[14]. 한국에 남은 인도 그의 사회적 네트워크는 있지만 완전히 한국사회를 융합하기는 어렵다. 다국적 이민자들의 민족정체(Ethnic identity) 관점으로 보면 국제화 인구이동의 큰 배경에서, 다국적 민족(Transnational ethnic groups)이 다시 모이는 것은 자신들의 문화체계로 인해 발전과 변천을 거쳤고, 단지 공통의 역사적 문화적 특징만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의 각각의 문화 콘텐츠를 공유하거나 그에 따라 새로운 민족적 동질성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한국으로 유동 이후 조선족의 국가 정체성은 강화되고 민족 정체성은 밝아지며 다국적 민족들의 문화적 정체성은 더욱 강해진다[15]. 재한 조선족은 그들만의 집단으로 한국인과 구분하고 주변사회네트워크에 대한 의존도가 다른 것에 비해 훨씬 크고, 한국인과의 거리두기, 심지어 한국인과의 관계까지 완전히 분리돼 있다. 이로 인해 한국 사회에서 조선족의 다문화 적응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16].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인이 지향적인 차별을 하고 있는 경험으로 조선족의 더 소극적인 태도로 진하여 작은 네트워크에만 생활하는 실태로 보여주고 있다.

선행연구로 한국사회에서 조선족이 직면한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고 그들의 민족적 특성으로 문화적응과 정체적 인식에 관한 연구가 주로 담고 있다. 단 조선족 유학생 집단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중국 유학생으로 이향(異鄉)생활을 하는 이질적인 집단이고 또 민족적 특성으로 겪으며 차별을 받는 상황을 이번 연구로 밝히고 그의 구조적 분석을 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현상학적 연구방법

본 연구에는 중국 조선족 유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에서 받고 있는 차별경험이 어떠한지, 그러한 경험으로 무엇을 느끼고 생각하는지 묘사하고 해석하고자 한다. 특수한 민족신분으로 이들의 경험은 다른 중국 유학생에 비하여 독특한 경험과 그 경험의 의미는 무엇인지 이해하려는 목적이다. 그러므로 연구참여자의 입장으로 그들의 경험을 이해하기 유용한 질적연구 방법으로 현상학적 연구(Phenomenological study)를 선택하였다. 연구를 위한 분석방법은 Colaizzi의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현상학은 우리가 세계를 경험 안에서 만나는 대로 바라보는 법을 요구하며 경험한 공간, 시간, 신체, 인간관계 등에 대해 겪은 그대로의 설명을 제공한다[17]. 현상학의 방법론 접근으로 원초적인 의식현상으로 돌아가 관념(본질의 관념, 범주를 포함)의 구성과정을 묘사하고 분석함으로써 관념의 규정적(의미적) 실제성을 증명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 조선족 유학생의 차별경험으로 느꼈던 의식과 그 과정에 자신의 조선족으로 처한 처지의 의미를 탐구할 수 있어서 현상학 방법론과 일치하다.

Colaizzi의 분석방법은 구성된 의미의 도출과정으로 기술된 내용에서 의미 있는 문장이나 구(句)를 추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진술을 만들어 의미를 구성하여 주제 묶음으로 범주화한 후 경험의 본질적 구조를 기술하는데 경험의 본질적 구조의 타당성을 참여자로부터 다시 확인한다. 이런 전후 과정은 주제에 그 의미가 반영되어 주제를 편견 없이 받아들이게 한다[18]. 이러한 분석방법으로 조선족 아르바이트 유학생의 이중차별경험의 본질적 구조와 의미를 탐색하고자 하는데 적합하다.

2.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현재 유학공부를 하고 있는 조선족 유학생 중 아르바이트 경험을 3개월 이상 했던 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현재 학생 신분으로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개인의 아르바이트 차별경험을 조사하기에 신뢰성을 가져야 한다. 일반생활에서 자신의 조선족 정체성을 밝히지 않는 사실로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쉽지 않았다. 이런 조건하에 눈덩이 표집 방법을 통해서 첫 참여자의 소개로 결국 9명을 선정하였다. 그들은 같은 매개(Wechat)로 연락을 하고 있고 매번 인터뷰 전에 참여자A의 설명으로 연구자와 참여자의 신뢰도를 보장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2명은 자신의 사생활 보호와 학업에 영향을 주는 가능성 등 원인으로 인터뷰를 거부하였다. 표 1은 연구 참여자들의 일반정보이다. 표 1에 보인 바와 같이 총 9명이 연구에 참여하였고 아르바이트 경험기간은 최소 4개월에서 최대 3년까지 이다.

표 1. 연구 참여자 일반사항

Table 1. General study participants

대상자	연령	성별	유학 시간	아르바이트 종류	아르바이트 경험시간
A	24	남	5년	음식집 배달원	3년
B	26	남	2년	음식집 주방	9개월
C	35	남	2년	음식집 주방	4개월
D	29	남	3년	음식집 주방	9개월
E	20	남	3년	편의점 직원	4개월
F	23	남	4년	택배역 직원	6개월
G	25	여	5년	음식집 종업원	2년
H	23	여	2년	식당 서빙	5개월
I	22	여	4년	편의점 직원	2년

3.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총 1-2회로 진행하였고 매번 인터뷰시간은 약 1시간 이었다. 연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녹음, 필답, 기록, 대화내용 저장기 이루어지며 요청 시에 기록된 내용을 제공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특히 유학생으로 차별경험의 상세한 사건의 내용을 토론함으로써 연구내용의 민감성으로 상관은 정보가 절대 노출되지 않으며 연구 참여자의 경험담은 이 연구를 위한 자료로만 사용되고 그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연구 참여자동의서를 받았다.

인터뷰는 2022년 10월부터 11월까지 1개월로 진행되었고, 자료의 정리에 재확인으로 2차 인터뷰도 선택적으로 진행하였다. 인터뷰 장소는 참여자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로 당사자의 연구실, 학교내의 커피숍, 영상통화 등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녹음의 질량을 보장하는 목적으로 조용한 인터뷰 장소를 선택하였고 개인의 차별경험을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최대한 아무도 없는 환경에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반구조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아르바이트하기 전에 한국인과의 관계”, “아르바이트하면서 겪었던 차별경험(조선족으로 특별히 경험한)”, “차별경험 받은 후 느낀점”등 3가지 단계로 진행하였다. 인터뷰 과정에서 참여자의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과 진술 당시의 분위기 등을 메모하면서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면접 내용은 필사하여 문서화하였다.

4. 연구의 엄격성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속한 대학교의 생명윤리위원회의 연구승인 (IRB승인번호: 2022-***-***-***)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의 신뢰성과 관련하여 Lincoln과 Guba가 제시한 네 가지 신뢰성 평가기준인 사실적 가치, 적용가능성, 일관성, 독립성에 기반을 두고 연구의 엄밀성 (rigor) 을 따르고자 했다[19].

첫째, 연구의 발견이 얼마나 실재를 정확하게 반영하였는지 평가한다. 이를 위해서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자의 면담기록내용과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경험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둘째, 연구 참여자 이외에 다른 조선족 아르바이트 유학생에게 연구 자료가 적용될 수 있는지 그의 적용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를 참여하지 않은 2분에게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연구 결과가 자기의 경험에 비교해서 봤을 때 의미있고 타당하는 생각을 검증하였다. 셋째, 자료의 수집에 일관성을 검증하는 목적으로 조사과정에서 중심의미와 구조를 상관 교수에게 지속적으로 상담하여 자문을 받았다. 넷째, 연구자 스스로의 편견이 배제되어야 하는 독립성으로 앞에 3가지 단계의 질을 확보하여야만 가능하다. 연구자의 선행 연구와 실제생활에 경험으로 논문구성을 하였지만 이러한 선이해는 인터뷰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피해야 한다. 유도적인 발언이거나 제시하는 연구의 결과에 객관성을 침해할 수 있어서 인터뷰과정에 최소한 적은 반응을 하고 충실한 경청자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이 외에 연구자는 사회학, 인류학, 심리학, 법학, 교육학 분야 등의 조선족 유학생에 대한 다학제적 접근으로 연구하는 논문을 찾아보고, 재한 조선족에 관한 영화와 다큐멘터리 등 매체로 조선족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기존에 조선족 유학생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깨고자 노력하였다. 연구자의 선이해는 연구진행과정에 영향을 주지 않게끔 노력하는 외에 자료분석 중에도 상담교수님과 만남을 통해 독립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IV. 연구 결과

본 연구결과 심층면접 자료에서 선택한 의미 있는 문장 및 구 271개에서 일반적인 진술을 만들어 의미 구성 119개를 도출했다. 표 2는 범주, 주제모음과 주제이다.

표 2. 범주화 과정

Table 2. Categorization process

Categories	Theme Clusters	Themes
생활비 마련과 효율적인 적응을 위한 새로운 도전	유학생에게 가장 큰 관심사, 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학금 경쟁이 너무 심함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를 벌어야 함 가정에 돈 달라는 부담을 주지 않도록 계획함 여행하고 사고 싶은 것을 살 수 있음
	성장과 도전의 기회인 아르바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힘든 일도 한번 해보고 싶음 유학생들의 한가한 시간을 보냄 아르바이트를 통해 한국어 실력 향상 기대
가시딴볼 가득한 이 길	중국에 대한 낯선 편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원들이 중국에 대한 것을 많이 물어보아 힘들었음 직원은 중국에 대한 자신의 편견을 표현하여 기분상함 예민한 정치문제를 계속 질문하여 나를 난처하게 함 한국인이 중국인보다 한층 우월하다는 말을 하여 기분 상하게 함
	부당한 대우를 강요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소시급 밑으로 받아서 후회됨 한국인 아르바이트생이 훔쳐간 매출금을 벌충하는 손을 입음 자주 발생하는 임금체불
	난감한 조선족 신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선족은 짱개라는 표현을 들어서 모멸감을 느꼈음 중국 거주 조선족에 대해 신기하다는 듯 꼬치꼬치 캐물어 기분 상함 연변 사투리 해서 고객님에게 욕을 먹었음 조선족이라고 글을 더 잘 알아서 오히려 일을 더 시키고 있음 조선족 중에 나쁜 사람이 너무 많다고 말하여 기분 상함
	성희롱과 신변안전의 위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손을 만지고 등에 손대며 말로 기분 나쁘게 함 신체적 괴롭힘을 당함
차별을 넘는 적응에 노력	유학생과 다른 아르바이트로서의 차별받는 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르바이트생이란 처지가 슬펐음 아르바이트하면서 만난 한국인과 대학원에서 만나는 한국 선생님들이 만나는 느낌은 전혀 다름 유학생은 아르바이트 하면서 보편적으로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느낌 일반적으로 받고 있는 차별현상은 자기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음
	차별회피 및 자기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에서 (차별경험)참을 필요가 없고 그냥 다른 일을 하면 됨 여자로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함 나는 이런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림

아르바이트를 통한 성장과 관계맺음에 기회	망리투한 (忙裏偷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르바이트 과정에 힐링을 받음
	아르바이트를 통한 시련의 극복과 적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기하지 않고 유학생생활에 이겨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함 조선족도 좋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주변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음 아르바이트는 한국 사회를 더 빨리 적응하는 과정임 유학생으로 아르바이트는 큰 힘이 될 수 있는 경험임
	인생귀인을 만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장님이 전에 중국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져서 특히 중국 사람을 좋아함 사장님이 나한테 엄청 잘해주고 좋은 한국 언니를 만났고 아직도 연락하고 있는 친구가 되었음
	삶에 길을 개척하는 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적인 고려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지만 이런 경험으로 향후 인생 계획하고 창업하는 마음이 생김

표 2에 보인 바와 같이 주제 36개, 주제 모임 12개, 범주 4개로 조직했다.

1. 범주: 생활비 마련과 효율적인 적응을 위한 새로운 도전

1) 유학생에게 가장 큰 관심사, 돈

조선족 유학생들은 학교생활을 빨리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모든 참여자들은 한국어를 능숙하고 학습생활에 언어문제를 고민하지 않는다. 그러나 학기가 끝나면서 장학금을 받기 어렵다. 장학금 경쟁에서 유학생 신분이라고 배려하는 점은 전혀 없다. 오히려 일반 한국 학생들에 비해 낯선 수업 패턴으로 그들을 수동적인 상황으로 몰아넣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조선족 유학생들은 자신들의 언어적 장점을 활용해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고민하게 되었다. 특히 그들은 방학시간을 활용해서 집중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한다. 또 다른 선배들의 도움을 받아 아르바이트를 하는 작은 모임이 형성되고, 사석에서도 아르바이트 단톡방이 생기면서 아르바이트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게 된다.

방학에 원래 시간도 많고 각자 일을 하니깐 누구도 나를 찾지 않아서 알바하는게 최고죠. 수업하면서 알바하는게 귀찮기도 하지만 교수님께서 알게되면 좀 불편하지... 장학금? 그런거는 우리 못 갖지. 한국학생과 같

이 경쟁해서 가지는 유학생이 몇이 없는데(참여자 A).

나는 한국에 와서 뭐 다른 유학생도 부러워하지만 언어가 잘 통하니까 과제나 잘 완성하면서 꼴등은 안하지. 그런데 또 뭐 잘한다는 얘기도 아니고(머리를 긁적 거림). 그리고 여기서 유학생들은 거의 다 알바를 찾으면서 생활비를 버니까 나도 해야돼 라고 생각했어. 우리 단톡방에 특히 기말끝난 후 알바를 구하는 소식과 원룸임대하는 소식이 제일 많아(참여자 D).

아르바이트를 통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일정한 금액을 모아서 여행 등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다. 돈은 조선족 유학생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되었고 아르바이트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시되었다.

2) 성장과 도전의 기회인 아르바이트

많은 참여자에게 아르바이트는 처음이다. 돈이 첫 번째 고려 요소이긴 하지만 이런 경험은 그들의 인생에 많은 성장기회를 준다. 아르바이트를 통해 힘든 일을 경험하고 돈벌이가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또 유학생들 중 생긴 자질구레한 시간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하면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다. 참가자들은 다른 일을 하면서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보다 아르바이트가 가장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조선족 유학생들이 가장 우려하는 사투리 문제도 아르바이트를 통해 꾸준히 연마하면서 점차 좋아지고 있다. 한국어를 체계적으로 연습해 보지 않은 참가자도 이 기회를 통해 한국어 실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남은 시간 동안 집에서 놀기만 하고 어차피 공부도 못 할 테니 차라리 아르바이트라도 하는 게 낫지. 나는 시간을 정말 아껴. 돈을 많이 주더라도 너무 멀리 가서 일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해. 매일매일 가는 것이 힘들고 또 시간낭비야(참여자 B).

저는 입학하기 전에 일단 알바하면서 부모랑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진짜 알바하면서 언어실력이 많이 늘어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늘겠지만 알바하면서 말을 똑바로 못하고 손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바로 욕먹어서..... 진짜 그런 상황에서 실력이 늘고 싶지 않아도 늘어요(참여자 G).

2. 범주: 가시덤불 가득한 이 길

1) 중국에 대한 낯선 편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불가피하게 외국인 신분을 가지면서 일해야 한다. 그런 신분은 존중받지 않았다. 일반직원과 구별되는 특수한 신분 때문에 중국에 대한 편견을 유학생에게 강요한다. 중국을 가보지 못해서 궁금한 부분이 많은 한국직원들은 중국에 대한 질문을 많이 물어보지만 중국유학생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은 한국직원은 여전히 발전이 미흡한 중국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되어서 역사적인 예민한 정치 문제와 자신의 편견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유학생을 괴롭히고 있다. 다른 국적에서 생활하였던 조선족 유학생들은 이러한 문제에 늘 답하는 짜증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위기에서 일도 잘 못하게 되며 사장님에 혼나게 되었다. 그리고 보통 호기심보다는 차별특성이 있는 문제가 많다. 이런 질문으로 유학생들은 한국인이 중국인보다 한층 우월하다는 느낌을 받아서 기분이 상하고 한국인과의 관계악화가 발생하고 있다.

거기에서는 중국인에 대한 인상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자꾸 물어보고 싶은 거는 'OO야, 거기도 맥주 이렇게 종류가 많아? 중국에 이거 있어? OO야, 너네 거기 빈부 차이가 엄청 크대며. 너 집 샀어?' 약간 이런 쪽에 많이 물어봐요. 아니면 '중국에도 이거 먹어? 있어?' 이런 질문이 되게 많거든요. 한 80년대 중국의 상황으로 물어보죠(참여자 G).

'너네 그쪽은 어떠어떠한가?' 그런데 시간이 되면 나는 그냥 '예예, 그래요.'하고 그냥 넘어가. 어차피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궁금해서 물어본 것은 아니야..... 우리 가게에 삼촌이 있는데 전에 역사 때문에 그런지 나를 자꾸 조선족과 북한에 사람들을 '빨갱이'라고 해. 내 하는 말을 북쪽이 사투리라고 말하고 너는 내보다 못하다, 나는 너보다 한층 위라는 우월성이 있어. 알바과정에서 계속 이런 말을 듣는 것이 진짜 짜증나(참여자 D).

2) 부당한 대우를 강요당함

외국인으로 외제적인 측면에 편견과 차별을 받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낮은 환경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의 부족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 법적인 자신의 정당한 노동자의

권력의식이 미흡하여 많은 참여자들은 한번정도 최소 시급 밑으로 받는 경험이 있다. 유학생으로 자신의 권력을 보장하는 능력이 미흡하므로 많은 친구에게 의지를 하고 있지만 불량한 사장님 밑에서 일하면서 임금체불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어떤 참여자는 한국에 거주하는 친구 혹은 친족의 도움으로 찾아가 자기의 임금을 받은 성공한 경력이 있지만 대부분 참여자들은 좋은 네트워크가 없어서 도움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은 결국 외국인 신분으로 이향(異鄕)살을 하는 어쩔 수 없는 처지로 그들은 생각한다.

제가 퇴근하기 전에 돈을 세어 봤는데 1만4천원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제 기억에 그날 손님은 다 카드결제 하고 현금(결제)은 한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전에 한국직원형님문제다 라고 사장님에게 말했는데 어떻게 좀 일이 복잡해 졌어요. ... 결국 제가 그 돈을 냈죠(참여자 E).

저는 일을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월급을 한 번도 제 때에 받은 적이 없었어요. 보통 며칠 지연되었죠. 보통 그달 월급에 일부분만 나에게 보낸 후에 일주일 간격으로 또 조금씩 주고 이러죠. 매번 내가 사장에게 가서 월급을 달라고 해야 너무 바빠서 미안하다고 하고 말은 안 하면 안 줘요. 일을 4개월만 했지만 나는 찾아가서 그만두겠다고 했죠(참여자 F).

3) 난감한 조선족 신분

외국인 신분의 차별과 달리 그들은 조선족 신분의 다중차별을 받고 있다. 같은 한 민족으로 생각하며 환영하는 것보다 조선족으로 오명적인 표현이 참여자에게 더 깊은 인상을 남겼다. 중국에 대한 호기심과 달리 같은 민족으로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에 대한 호기심도 있다. 한반도에서 이동하여 중국에 거주하고 있지만 과연 더 좋은 생활을 하고 있는가에 의심으로 꼬치 꼬치 캐물어 많은 조선족 유학생들은 기분이 상했다. 그리고 많은 노력으로 조선족 티를 내지 않으려고 했지만 고향에 사투리가 들키면서 고객님에게 욕을 먹고 차별을 받고 있다.

처음했을 때 담배 안 피워서 브랜드 이름을 잘 몰라요. 편의점에 담배 종류가 엄청 많은데 그걸 익숙하지

못해서 한 일주일 동안 계속 손님에게 '원하는 담배를 짚어주세요' 라고 말했죠. 그런데 어느날 새벽 3시에 술 취한 할아버지가 들어와서 담배이름을 불었는데 저는 몰라서 그냥 계속 '짚어주세요, 저는 모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투리 써서 그 할아버지가 내 조선족인거 알았어요. 그리고 저를 찬찬히 보고 '너 왜 조선족이나? 한국어 몰라?' 저는 '한국어 알아요. 그런데 할아버지 말한 담배 모르겠습다'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소리작아서 그런지 말한 후 '뭐라고 말해? 조선족으로 왜 여기서 말도 못 알아듣고 일해?' 이렇게 말하고 욕하면서 나가더라고요(참여자 E).

엄청 바쁠 때 사장님이 저한테 뭘 시켰는데 제가 잘 못 들었어요. 그때 뒤기는 소리도 있고 기계를 돌리는 소리도 있기 때문에 잘 못 들었는데 사장님이 '말했는데 안 들리냐고! 조선족인데 말도 잘 못 듣냐고. 어떻게 너 같은 조선족도 있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참여자 I).

다른 중국 유학생과 달리 조선족 유학생은 언어실력이 도출하지만 일부 사장님은 이런 상황을 이용하여 같은 시급에서 조선족 유학생에게 더 과중한 일을 시킨다. 결국 언어실력이 자기를 더 힘들어지게 되었다. 최근 몇 년간 대중매체에서 조선족에 대한 불친절한 선전으로 많은 한국인들은 조선족에 대한 호감도가 낮으며 조선족에 나쁜 사람이 너무 많다고 말하며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조선족이라서 일 더 불러먹지. 말 좀 할 줄 아네. 그럼 이런 일도 알겠지 하면 이거 더 해라고 일을 시켜. 알바시급을 주는 그 사장님들 상태에서 너는 한국말 잘하네, 그래 같은 돈을 내는데 일을 더 하면 좋지. 특히 슈퍼마트에서 돈 받는 사람들 뭐 음식들이 들어오면 그거 쌓지 넣고 그리고 또 재고로 체크하고 그런 거 하지. 한족(漢族) 유학생들은 소통은 문제없어도 그 무슨 포장봉지 같은 글씨는 읽기 힘들어 하잖아. 조선족이 딱 들어오면 그냥 이런 일 시키지. 사실 조선족으로 보통 유학생보다 언어우세로 때문에 일 더 해(참여자 D).

어떤 한국 사람들이 한민족으로 환영하지만 오히려

조선족을 좀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조선족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일이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한국인이 생각하기에는 조선족이 나쁜 사람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저는 이런 토론을 듣기 싫어서 제가 조선족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참여자 G).

4) 성희롱과 신변안전에 위협

여성으로 그들의 성적인 침범과 위협이 있다.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술에 취한 손님에게 괴롭힘을 당한 상황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여학생들은 이런 상황에 두려움을 느낀다. 많은 여학생들이 기억을 더듬을 때 그때의 두려운 심정을 동반한다. 이러한 경험은 유학생들의 아르바이트 과정을 어렵게 만든다.

어떤 손님은 얘기하면 되는데 꼭 저의 손을 한 번 만지면서 어깨를 딱 치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화 달라 그런 거는 그거는 좀 별거 같기도 하고요 근데 한 번씩 손을 만지고 딱 어깨를 등치면서 '아가씨 귀엽다' 이런 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참여자 G).

30대 후반 아니면 40대 초반 아저씨가 자꾸 쓸데없이 그냥 말 걸고 자꾸 칭찬해 주고 아니면 자꾸 저 등을 치고 꼭 저보고 오빠라고 부르라고 해요. 옆 테이블에서 치우고 있는데 갑자기 사랑해요라고 말하고 진짜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또 뭐라고 하기도 그렇고 참을 수 밖에 없어요. 그냥 빨리 치우고 그 자리에 벗어나죠(참여자 I).

3. 범주: 차별을 넘는 적응에 노력

1) 유학생과 다른 아르바이트로서의 차별받는 사실

조선족 유학생들은 이러한 다중적인 차별경험을 받은 후 많은 현실적인 문제를 직면하게 되었다. 그들은 자기가 특수한 신분으로 한국에 생활하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다. 우선 이런 처지로 슬픔을 느꼈고 학교에 만난 한국 선생님과 학교밖에 만난 한국인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신에 대한 두 집단의 태도는 천차만별이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태도를 측정기준으로 삼아 일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을 그렇게 대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더 중요한 것은 취약계층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조선족 유학생은 아르바이트 과정에 보편적으로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점차 직면하고 소화하게 된다. 참여자들은 이것을 자신의 힘이 미흡하며 한국사회적인 차원에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저의 학과에 대부분 선생님은 저를 잘 대해줘요. '언어상에서도 그렇고 문화 적응에서도 그렇고 되게 힘든 시켰다' 해서 약간 이렇게 많이 도움을 주는 선생님도 많고요. 한국 선생님들과 지내는 거는 그렇게 큰 벽이 없어요. 그런데 일하는 한국인은 달라요. 저를 위해서 생각해 주는 것보다 그들의 관심있는 일이거나 자기가 맞다는 편견으로 저를 대하죠(참여자 G).

차별라고 하지만 이런 것은 뭐 방법이 없죠. 오직하면 조선족이란 티를 안 내겠다고 노력하고 있겠어요. 처음에 왔을 때 막 주방에 삼촌과 걸고 들면서 틀렸다고 말했지만 이제는 다 괜찮아. 내 말로 인상을 개변하는 것은 너무 힘들어(참여자 C).

2) 차별회피 및 자기보호

현실을 직면하고 처지를 알게 된 후 그들은 이런 차별을 회피하며 자기를 보호하는 수단을 찾고 있다. 돈을 번 것도 중요하지만 일에 의지가 너무 강하면 안 되고 차별을 참을 필요가 없고 자신의 이익을 첫 순위로 고려하여 일을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한두 번 성적인 피해를 받은 참여자에게 친구의 도움을 받고 자기를 보호하는 효율적인 방식을 찾았다. 사소한 일반생활에서 직원들의 평가 혹은 불필요한 말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마음을 다스린다.

나는 지금 마음가짐이 너무 좋아. 지난번 그 불량한 사장을 만나 바로 일을 그만둔 후부터 나는 깨달았어. 일 하나 때문에 이것저것 참아낼 필요는 없잖아. 일은 얼마든지 있어. 내가 참으면 참을수록 사장은 나를 만만하게 볼수록 더 괴롭혀. 이렇게 알바를 할 필요는 없잖아(참여자 B).

뭐 해결방법은 크게 없어요. 그냥 무시하면 되지. 이제 우리 가게 아저씨들도 나를 잘 알아. 그냥 차별같은 말이 나오면 나는 한 킬로 들고 한 킬로 흘리니까 그들도 자기 원한 반응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게 되지. 계속 말하면 그냥 훌 나가서 담배 한 대 피우러 가지.

지금까지 뭐 딸아 나와서 말하는 사람은 없어(참여자 D).

4. 범주: 아르바이트를 통한 성장과 관계맺음에 기회

1) 망리투한(忙裏偷閑)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모든 일이 다 바쁜 것은 아니다. 일하면서 경험을 싸이고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시간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 이 시간들은 마치 스펀지에서 짜낸 물과 같이 이용하여 책을 읽거나 휴식을 취하며 바쁜 유학생생활을 하면서 약간의 여유로 긴장을 풀 수 있다.

저의 편의점은 학교근처로 주말 혹은 빨간날에 학생이 적어서 손님이 크게 없어요. 저는 또 아침에 출근하면 가게에 거의 온 오전 손님이 없어요. 햇빛도 잘 들어오고 한잠자기 좋죠. 조용한 환경에서 독서도 잘 되고 그래서 주말에 알바는 너무 좋아요(참여자 I).

2) 아르바이트를 통한 시련의 극복과 적응

조선족 유학생으로 다중적인 차별을 받고 이것저것 힘든 일을 겪었지만 참여자들에게는 유학과정에서 넘어야 하는 산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남과 다른 대우를 받는 불공정한 문제에 대해 깊이 따지지 않는다. 이것을 자신의 성장하는 시련으로 삼고, 적극적으로 임하며, 그것을 이겨낸다. 그리고 자신으로 부터 다른 한국인이 조선족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좋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길 바란다. 참여자들은 아르바이트에 대해 안 좋은 경험이 많지만 돌이켜보면 늘 의미 있는 경험으로 받아들인다. 조선족 유학생들이 한국사회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고, 이를 수용해 태연하게 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경험이다.

저는 솔직히 생각해 보면 아르바이트는 좀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한국 사람들이랑 아니면 한국사회를 좀 더 빨리 적응해야 하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아르바이트가 좋은 선택이에요. 아르바이트 하면 한국말 진짜 빨리 늘어요. ... 무슨 일이든지 다 맞다 틀린다는 절대적으로 평가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유학생이라서 아르바이트 경험이 되게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참여자 G).

한국인에게 이런 좋지 않은 추억을 받았지만 나쁘면 나쁠수록 내가 더 강해야 되죠. 제가 더 노력해서 주변 한국인들이 조선족을 평가할 때 그래도 조선족에도 괜찮은 사람이 있다는 인식을 변화시켜야 하죠(참여자 H).

3) 인생귀인을 만남

일을 그만 두어도 계속 연락을 유지하고 현재까지 만나는 친구 있다. 중국에 낯선 편견을 갖는 반면에 중국에 가보고 좋은 인상을 남긴 한국인도 있다. 그들은 조선족 유학생의 신분을 잘 받아드리며 서로 이해하면서 지낸다. 이런 분을 만난 조선족 유학생의 유학생생활에게는 사막의 한 오아시스 같은 존재로 소중하게 만나고 있다. 상호의 좋은 네트워크를 맺고 좋은 추억을 남기는 과정이다.

처음 했던 식당일은 엄청 좋았어요. 거기서 사장님도 저한테 엄청 잘해주고 거기서 제일 추억이 남은 게 엄청 좋은 한국 언니를 만났어요. 지금까지 계속 연락하고 있어요. 하지만 코로나가 터져서 어머니가 걱정해서 그만됐죠. 너무 아쉬워요(참여자 I).

사장님은 중국을 엄청 좋아해. 중국어 꽤나 알고 저하고도 중국어로 대화하려고 노력도 하고 그렇게. 자기 이제 중국에 가보고 싶다고도 말하고..... 그리고 나는 전에 했던 중국 여학생의 덕을 받았지. (그 친구가)일을 너무나 잘해서 사장님이 놀라셨어. 중국인이 다 이렇게 일을 잘 하는가? 그래서 처음에 전화로 저는 중국인이라고 말했을 때 엄청 좋아하시데..... 지금은 너무 바쁘고 방학에 도와주러 간다고 사장님과 약속했어(참여자 C).

4) 삶에 길을 개척하는 기회

이곳에 유학 왔다가 귀국한 것은 물론 부모·친척 모두 한국에 있는 일부 조선족 유학생들도 유학하면서 앞으로의 인생을 계획했다. 아르바이트 경험은 앞으로의 인생에도 새로운 선택지가 되었다. 특히 언어를 구사하는 조선족 유학생들 중 창업자 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 아르바이트는 돈 버는 것뿐만 아니라 일을 열심히 하고 기술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은 그들의 인생에 새로운 장을 열어준다.

공부가 한국에 와서 해야 할 유일한 일이 아니에요. 저의 부모님께서도 저에게 말씀하셨지만, 한국에 유학 가면 친구를 많이 사귀고, 교우권(交友圈)을 많이 넓혀야 한다고 하셨어요. 이런 인맥이 생기면 저도 스스로 사업을 더 잘하게 될 거라고 말을 많이 해요. 그때 그 사장이 저를 그렇게 잘 부려주어서 많이 배운 것도 지금 생각하면 다 좋은 일이죠(참여자 F).

V. 논의

본 연구는 Colaizzi가 제시한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적용하며 조선족 아르바이트 유학생의 차별경험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는 '생활비 마련과 효율적인 적응을 위한 새로운 도전', '가시덤불 가득한 이 길', '차별을 넘는 적응에 노력', '아르바이트를 통한 성장과 관계맺음에 기회' 등 4개의 범주, 13개 주제모음 및 36개 주제로 확인할 수 있다. 각 범주를 중심으로 연구결과를 논의한다.

첫째, '생활비 마련과 효율적인 적응을 위한 새로운 도전'으로 조선족 유학생에게 아르바이트는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선택이다. 아르바이트로 유학하는 조선족 학생에게 생활비를 해결하는 대체방안이고 또 이 과정에서 유학생들의 다양한 문제를 직면하면서 자신이 성장하는 새로운 단계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들에게 아르바이트로 시작하면서 유학의 새로운 삶의 형태를 마지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줬다.

둘째, '가시덤불 가득한 이 길'로 그들에게 아주 지향적이고 다차원적인 차별이 있다. 현재 한국으로 조선족은 아주 특수한 민족으로 볼 수 있다. 조선족 유학생들은 언어·외모 등에서 유사도가 높지만 여전히 한국인들로부터 차별을 받으며 한국인과 잘 어울리지 않다[20]. 한국 대학생으로 조선족에도 낮은 호감도를 갖고 있다. 외적 호감도로 미디어와 매체의 범죄 이미지로 인한 선입견과 편견이 작용하고 있고, 내적 호감도로 이질적인 문화와 조선족의 정체성 문제에 따른 이질감으로 인한 친밀감 결여, 관계의 문제 때문에 낮게 나타나고 있다[21]. 과거의 중국 조선족에 대한 인식을 가지며 낙후되었고 가난한 노동자의 집단으로 평가하거나 편견을 갖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22]. 심지어 한국사회로 정주민과 이주민으로 구분하여 조선족이라는 사회집단에

부정적 인식과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있다[23]. 이러한 결과로 조선족 유학생은 아르바이트과정에서 결국 자기의 민족신분을 감추게 되며 일반 유학생보다 더 힘든 근무환경을 마지하게 되었다. 큰 다문화사회의 진입으로 아직도 여전히 조선족에 대한 편견이 있으므로 이것은 조선족 유학생에게 다중차별을 받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셋째, '차별을 넘는 적응에 노력'으로 그들은 이런 곤경에서 자아탄력성을 구축하며 현실을 직면하게 된다. 차별경험은 그들에게 실제의 한국생활을 더 빨리 알게 되었으며 그들의 사회적응에 더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하였다.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차별경험을 받는 후 그들은 상황을 파악하면서 자신에 효율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며 차별을 회피한다. 차별은 계속 발생되며 개인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지만 이것을 직면하며 자기보호에 중심을 가지고 더 좋은 유학생생활을 가추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그들의 가진 네트워크로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한다.

넷째, '아르바이트를 통한 성장과 관계맺음에 기회'는 결국 그들이 차별경험을 유학생생활에 더 성장하는 계기로 보고 있다. 인간관계는 삶에 큰 영향을 미치며 대학생에게 미래진로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24]. 다중차별로 그들의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주기도 하였지만 그들은 고생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다. 좋은 모습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서 그들에게 모두 소극적인 영향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 동시에 차별경험의 기준으로 더 좋은 친구를 만나게 되며 더 든든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된다. 시련으로 생각하는 많은 참여자의 인터뷰 내용으로 그들의 이 차별경험을 향후의 생활에 더 큰 힘으로 전환하는 시도를 하며 결국 더 좋은 관계맺음을 가지게 되었다.

VI. 결론 및 제언

다원적인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조선족 유학생에게 아르바이트는 여전히 현재 유학생생활에 경제적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선택이다. 우리는 연구에서 그들은 아르바이트에 경험한 다중차별은 유학생생활에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보고 있는 것을 알게 된다. 그들은 현재 사회적 환경에서 조선족 유학생에게 편견이 없어지는 것에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신의 노력으로 이겨내며 계속 아르바이트로 경제적 부담을 감소해야 하는 마음가짐을 더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 이런 행동이 유지되며 다중차별을 받고 있는 그들에게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그들의 아르바이트 경험을 알아보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대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론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보고한다.

첫째, 외국인 노동자의 법적 권리 보호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 2002년부터 한국 외국인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이 합법화되었으며, 법적 기한 내에 시간제 취업을 추구하는 것이 외국인 유학생의 권리이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인 조선족 유학생들은 최저임금 문제, 임금 체불 문제 등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 이 모든 사건들은 한국 사회가 유학생들의 집단으로서의 노동실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관련 징벌적 장치들이 감독을 형성하기 위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둘째, 캠퍼스 내 외국인 학생들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인권 침해의 한 부분으로서의 차별은 법령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유학생들은 단체로 캠퍼스 생활에 적응할 때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학생들이 통합하고 파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와 친구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차별 경험을 파악하기 위한 유학생들의 캠퍼스 및 정신건강 조사에 대한 정기적인 강의는 그들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셋째, 조선족 정체성에 낙인이 찍혀서는 안 된다. 세계화 시대를 맞아 한국 사회에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어 민족평등과 정체성 평등의 실현은 다문화 사회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조선족은 여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다른 국적으로 인정받지 못해 '부적합자'가 되고 있다. 이것은 많은 조선족 학생이 해외에서 공부할 때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는 원인이 되었다. 앞선 연구와 달리 한국어 실력이 좋은 조선족 학생들은 다른 외국인 학생들에 비해 한국사회에 잘 융화되지 않고 오히려 부정적인 요소들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이라는 신분 외에도 조선족의 민족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중차별을 받고 있는 조선족 유학생들에게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들의 민족성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다른 유학생들로부터 분리시키는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선족 근로자와 유학생은 다문화 사회의 중요한 부분이며, 그들의 정체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향후, 조선족 유학생과 같은 타 민족의 유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과 그들의 경험한 차별경험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1] Kim Chang-gyu. "Reconsidering the Knowledge of 'Korean-Chinese' in Korea," *Emotion Studies*, Vol. 16, pp.179-208, 2018. doi: 10.37996/JOG.16.7
- [2] Kim Hye-Gyeong. "Study on labor experience of young people working part time -using giorgi's phenomenological research-", *Master's Thesis. Kyonggi University*. 2013.
- [3] Wei Su, Jinxi Michelle Li, and Kwon Soo Kim. "The Effects of Ethnic Identity Behavior and School Belonging on Psychologic Wellbeing and Job Satisfaction among Chinese Student Workers in Korea," *The Journal of Eurasian Studies*, Vol.17, no.3, pp.21-42, 2020.
- [4] SeuliKi Kim. "A Study on the Legal Issue in Protection of the Right of Foreign Worker," *Ph.D. Thesis. Wonkwang University*, 2019.
- [5] Shin Seon Hee, Yu Munmu. "A Qualitative Study on the Acculturation Experiences of the Chinese Students at a South Korean University," *Journal of Holistic Education*, Vol.18, No.2, pp. 45-69, 2014.
- [6] LE VI. "An Empirical Study on Foreign Student's Labor: Focusing on the Labor and Living Conditions of Vietnamese Students," *Master's Thesis. Sungkonghoe University*, 2019.
- [7] Kim Jae Yop, Jang Daeyeon. "The Effect of Part-time Job Experience on School Maladjustment: Double Mediation Effect of Alcohol Drinking and Aggression on Adolescents,"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Vol. 41, pp.1-27, 2018. doi: 10.20993/jSSW.41.1.
- [8] Bonan Ni, Jinxi Michelle Li, and Chang Kwon Cho. "The Effects of Cultural Intelligence on Cultural- and Work-Adjustment among Chinese Student Workers in Korea," *The Journal of Eurasian Studies*, Vol.17, No.2. pp.25-50, 2020.
- [9] ChunGuang Cui, "Research on the stigmatization of Chaoxian people (Korean Ethnic Group of China) in South Korea," *Master's Thesis. Southwest Minzu University*, 2019.
- [10] Yuemei Tian. "The Other and Realm: Character

- of Chinese Korean nationality in Korean films,” *The Journal of Language and Literature*, Vol. 56, pp.167-195, 2016.
- [11]Kanybekova Aizhan, Bongkyu Sun, and Muhammad Adnan, “Representation of Korean-Chinese in Korean Film and Social Recognition: Focusing on ‘Midnight Runners’ and ‘The Outlaw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 11, pp.365-378, 2020.
- [12]JinHai Piao, YunTong Sun, “Social Integration of Floating Minority Groups in Transnational Mobility: A Case Study of the Social Integration of the Korean Ethnic Group in South Korea,” *Journal of Yunnan Minzu University(Social Sciences)*, Vol.37, No.5, pp.24-29. doi: 10.13727/j.cnki.53-1191/c.2020.05.005
- [13]Youngsoon Kim, Chen Jia, and Huang HaiYing, “A Study on the Cross-cultural Adaptation of Korean Chinese in South Korea,” *Journal of Hebei Normal University for Nationalities*, Vol.35, No.3, pp.16-20, 2015. doi:10.16729/j.cnki.jhnun.2015.03.020. doi: 10.16729/j.cnki.jhnun.2015.03.020
- [14]Meihua Li, Yue Guo, “Social Adaptation and Barriers of the Korean-Chinese Worker Community in Korea-- Analysis based on case narrative interviews.” *Dongjiang Journal* Vol.33, No.1, pp. 43-48, 2016.
- [15]Guangxing Piao, “The National Identity, Ethnic Identity and Ethnic-group Identity of the Korea-going Korean Laborers from China.” *Journal of Yunnan Nationalities University (Social Sciences)* Vol.27, No.3, pp.41-47 2010. doi: 10.13727/j.cnki.53-1191/c.2010.03.026
- [16]Yingmei Piao. “In Korea’s Korean Social Network and Cross-cultural Adaptation Research.” Master’s Thesis. *Yanbian University*, 2013.
- [17]Moustakas, C.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1994.
- [18]Ki Young Lee, Min Kyoung Kim.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Experience of North Korean Women Who Have Fled to South Korea with Their Undocumented Children Born in Chin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No. 52 pp.209-239, 2015.
- [19]Lincoln, Y. S, Guba, E. G, 《Effective Evaluation》. 4th Ed.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cation, 1985.
- [20]LanXue Shen, “Influence of Chinese-korean on the local society in Korea,” *Master’s Thesis. Yanbian University*, 2016.
- [21]SuJin Cho. “A Study on Liking of Migrants of Korean University Student: Focused on Joseonjok Migrants,” *Journal of Product Research*, Vol.39, No.2, pp.47-52, 2021. doi: 10.36345/kacst.2021.39.2.006
- [22]Cui LiNa. “The effect of Chinese-Korean students’ Discrimination on the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in Korea,”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2018.
- [23]HaNeul Na. “Discrimination and Social Integration of Ethnic Koreans living in Korea,”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2021.
- [24]EunJung Son, MoonSeup Kim, and JinSook Kim, “The Experiences and Meanings of University Student Entrepreneurs’ Start-Up Activitie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8, No.6, pp.381-388, 2022.

※ 이 논문은 2022년도 한국연구재단의 BK21
사업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